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제 14 호
(정기회)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7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상정된 안건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사무처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현일 행정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길지 않나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에서 의논하면 그 이전에 결론을 내실 수 있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다. 원자력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37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 인재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불참하였고, 구혁채 1차관은 예결위 참석 일정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제명 2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2025년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로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5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6700억 원입니다. 이 중 R&D 예산은 2025년보다 2조 500억 원 증가한 11조 77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인 35조 2900억 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AI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5400억 원 증가한 5조 940억 원으로 정부 총 AI 예산 10조 1400억 원의 약 51%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2~3년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민관이 함께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민간의 AI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첨단 GPU, 데이터 스페이스 와 같은 AI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최고급 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주요 지역에 AX혁신거점을 구축하여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AI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통신·금융·공공의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급성장하는 신산업을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첨단바이오, 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은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은 확대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출연연은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를 대형, 중장기 임무 중심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안에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기초연구 과제 수를 삭감 이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화되는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감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고유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디지털배움터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의 총 규모는 1조 19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파수 할당대가 증가 및 여유자금 회수 확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한편 2026년도 세출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2373억 원으로 금년 대비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보조사업 및 재정사업 평가 결과 반영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비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의 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중점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난방송 분야에 예산을 중액 편성하여 국민 안전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확산에 대비하여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음란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안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2억 원 증액된 24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479억 원 증액된 428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금년보다 157억 원 증액된 29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443억 원 줄어든 1044억 원, 기금 지출은 금년보다 601억 원 늘어난 18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첫째,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이 임박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설계인가의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i-SMR에 대해서는 당장의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넘어 설계부터 해체까지의 전 주기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규제체계를 사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재난과 방사선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의 신축을 내년에 마무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공항에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해외직구 등을 통한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과 방사선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주항공청의 2026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한 2026년도 우주항공청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 9649억 원 대비 1482억 원이 증가한 1조 1131억 원입니다. 이 중 R&D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70억 원이 증가한 945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사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누리호 5차 발사를 추진하고, '저비용 고빈도 발사 역량' 확보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주공간에서 궤도를 이동하며 다양한 임무에 활용 가능한 궤도수송선 개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관측 기술 확보를 위해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개발을 착수합니다. 아울러 2030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6G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과 2029년 1호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달탐사 2단계 달착륙선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도전적인 우주탐사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제조와 지구로의 회수를 수행하는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우주실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전기 항공기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 대응하여 미래비행기 핵심기술과 초경량·고강도 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안보 분야 국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성충권 드론의 실증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뉴스페이스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우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주항공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양성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흥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및 2차관 소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은 차관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은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499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예산상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공모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기간과 실제 연구기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은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월드모델 개발과 가상 시뮬레이션·학습 선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신규 R&D 사업으로 1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중에 민간 부담분 비율이 높으므로 컨소시엄에 대·중견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업 참여 의향을 적극 파악하고 민간 매칭 재원의 확보 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는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 및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AI 산업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 1087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GPU서버확충은 사업을 수행 중인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운영비 대신 일부 GPU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 분석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입니다.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은 최적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 방안을 기획·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AGI 연구소 설립 자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신규로 2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기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국가 AGI 연구소 출자 방식 등 사업 추진의 주요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출자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I·SW중심대학은 대학의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이끌 핵심인재 및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중심대학 사업입니다. 1179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대학별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신규 과업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지표의 목표 상향 및 산출, 영향지표 추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대비 세출 재원을 충당한 후에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9070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불용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 편성 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과다 편성됨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 추이를 분석하여 집행 가능성은 고려한 예탁금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보험모집보상금은 우체국보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서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그리고 외부 보험모집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6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외자 보상금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이·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보험모집 실적과 보상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편성 규모를 현실화하되, 보험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보상금의 적정 편성 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은 통신 소외·디지털 취약계층에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단말기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2억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사업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절차상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은 생략하고 11쪽 보시겠습니다.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은 그 내역사업 중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AI·SW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45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는 사업계획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한 예산의 38.5%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의 집행 점검이나 일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방미통위 소관 조직 및 인력의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나 예산안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고 비상임위원이 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상임위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비상임위원의 회의 관련 수당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미심위 위원장 신분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직급 수준, 인건비 및 관련 경비 지급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방미통위 소관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의 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터널 등에서 FM·DMB의 수신 개선을 위해서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32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사업자 부담으로 인해서 지원기관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면밀한 집행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부 총괄 사항입니다.

첫째, 내년도 R&D 예산 35.3조 원 중 과기부의 배분조정 대상인 주요 R&D 예산은 30.1조 원에 달하는 바 예산심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현행 30일의 심의기간에 1500여 개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는 R&D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심의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전략연구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5개의 분야별 점검단으로 구성된 전략연구지원센터를 두기로 하였는

데, 5개의 점검단의 사업관리 인력이 40명에 불과해서 사업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며 향후 전략연구사업 과제 수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차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중에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의 현실적 가능성이 떨어지고, 타 부처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회 내 행정통합 및 전문화를 위해서 출연(연)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 데이터 이중화를 통한 보안체계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되,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할 개별 연구기관들의 절감된 행정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원안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서면 위주의 실태조사만으로는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준·위탁계약에 연계함으로써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은 항우연과 천문연에 출연하여 집행할 계획이지만 동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근거 법령의 취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수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주희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관련입니다.

아니,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현안질의.....

○김현 위원 현안질의는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만 합시다.

○위원장 최민희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민 위원 먼저 할까요?

○이해민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보내 주신 예산안,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관님, 제가 부총리님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당시에 제안드린 내용이 있어요, 예산안 관련해서. 이미 내년도 예산이 국회로 넘어와 벼려서—그 당시 9월이 넘어갔으니까—이전 정부 기조가 그대로 넘어온 것도 많으니까 11월에 있을 국회 예산 심사 이전에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과 미스매치되는 부분 전수조사해서 알려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이해민 위원 2026년도 예산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소요 제기를 이미 사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회에 제출한 거라고는 하지만 사업 하나하나 충분히 부총리께서 직접 따지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아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함께 바로잡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런데 그 취지의 정말 중요한 뜻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던 취지는 뭐냐면 그냥 두면, 그때 이미 넘어와 벼렸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조가 가만히 그냥 두면—예산안 기준으로는 2027년도부터—집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의 방향성이 예산안에 반영되는 시점이 그렇게 되면 정권 집권 3년 차잖아요. 다른 분야도 문제겠지만 과학기술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한테 좀 커있어서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 미스매치되는 부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가져오신 것은 없습니다.

2차관님과 혁신본부장님께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올라온 예산, 이전 정부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예산이 다 걷어 내진 채로, 그건 사실 착각에 해당이 되거든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이전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더하는 쪽으로 반영됐다고 자신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정부가 예년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재부에 정부예산…… 부처가 제출하는 시점이 보통 5월 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정부 출범과 맞춰서 상당 부분 이전에 논의했던 것들하고 많은 보완 작업들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 말씀한 취지가 충분히……

○이해민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해민 위원 혁신본부장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금 여기도 보면 조직 기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유일하게 과학기술혁신본부입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조정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사업이 과기정통부에만 해당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아닙니다. 전 부처 해당됩니다.

○**이해민 위원** 전 부처지요?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인데……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은 멈춰 서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R&D 삭감도 그렇고요. 이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번 무너져 버린 그 거버넌스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차관님께서 답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런 예제들이 있어요. 미스매치되는 게 그냥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위에서 꼼꼼히 짚을 텐데, 예제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보스턴 프로젝트요. 작년에 저 예결소위 할 때 이미 깎았었던 건데 올해 다시 들어왔어요. 이것은 누가 넣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이 보스턴 프로젝트는……

○**이해민 위원** 새로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새로 들어온 것은 저희 혁신본부에서는 신규를 넣지 않고 기재부에서……

○**이해민 위원** 기재부에서 넣었잖아요. 알아봤더니 이것은 과기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끼워 넣었는데 전문 부처 기관 심의 없이 기재부에서 이걸 다시 올리는 구조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이 기재부에 끌려 나가는 구조는 현재 거버넌스상 맞지가 않아요, 원래 취지상. 이게 이렇게 되면 성과 좋으면 기재부 공이고 문제가 생기면 과기정통부 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특화 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이 개소한 보스턴오피스 관련해서 150억씩 총 300억 원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올해 예산 얼마나 반영됐나 보려고 했더니 단위과제 사업이라서 서울대가 집행하고 예산서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살필 테니까 관련된 자료, 아마 중간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사업이라도 전수조사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우선 박인규 본부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이주희 위원** 어쩔 수 없이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누리호는 국가정책에 의해 개발된 발사체로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발사체인 건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누리호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우주 경제, 안보, 기술 등에 있어서 우주 자주권 지금 확보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국감에서 이 부분 지적했는데 우선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이주희 위원** 그중의 국정과제 스물여덟 번째, 세계를 선도할 NEXT 전략기술 육성에

누리호 7차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누리호 7차 발사 사업 좌초될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도 상당히 많은 생태계 파괴 우려 지적을 했었는데요.

본부장님, 재사용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산업 생태계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이주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이 7차 발사 예정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동의합니다.

현재 있는 사업은 6차 발사까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재사용 발사체로 하려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 연장해서 7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 예산 제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 좀 꼭 해서 과기부가 발벗고 나서서 협의 꼭 하시고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우주청하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다음으로 류제명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주희 위원** 지금 정부 예산안 보니까 블록체인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35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면 무려 32%인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주희 위원**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 사정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금 사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정진기금하고 방발기금의 공자기금 차입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서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일반회계로도 전환을 하고 또 기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아무리 어떤 재정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이번에 저희 정부에서 대폭 예산을 증액한 이유도 국민의 민생과 그리고 미래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면 AI 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정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적시를 놓칠 경우에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하루가 늦어질 때 한 달이 되고 1년이 늦어지고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반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주희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우리가 AX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이 블록체인, AI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예산 증액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계 당국과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반상권 대행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김장겸 위원** 조금 전에 류제명 차관님이 방발기금의 공자기금 차입금 액수가 5조 원에 달한다, 굉장히 기금 고갈 상태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들으셨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TBS 언론노조가 여당과 방미통위에 방발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지금 TBS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TBS eF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 정보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김장겸 위원**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 TBS가 이런 방발기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시지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1920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시간당 141.5㎲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TBS는 총 40건의 재난방송 요청 가운데 57%가 넘는 23건을 지역 방송했어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지역 사례가 없고 종편 4개 방송사의 경우에도 최대 32% 정도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TBS가 재난방송으로서의 의무를 과연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이것 수치로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2020년 이후 TBS는 송출 의무가 있는 2000건의 재난방송 요청 가운데 77%가 넘는 1500건을 넘는 숫자를 지역 처리했어요. 이게 당국이 요청한 재난방송 가운데 77%를 각 송출했다면 재난 방송사로서의 자격 미달은 확실한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발기금 지원 근거로 제시한 TBS eFM 역시 사

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재난경보가 발령된 2022년 8월 8일 12시 50분부터 8월 10일 19시 40분까지 이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영어 프로그램에 재난방송이 적정했던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단 1 건도 없는 재난방송 적정입니다. 이것 모두 미실시 혹은 미흡이지요. 미흡인 것도 거의 부적합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재난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취재기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재난방송을 자연 방송하고 취재 내용을 유튜브에만 게재하고 그리고 비상대기조를 편성한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런 것의 법적의무를 방기하고 있는데도 TBS 이사회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류제명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방발기금은 2030년부터는 공자기금 차입금 상환도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요. 이런데도 지금 TBS에 우리 편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더구나 TBS는 지난 10년간 30건의 방심위 법정재판을 받을 정도로 편파 시사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방송은 아예 무시하고 편파방송만 계속해 온 이런 방송사에, 그것도 지금 고갈 상태에 있는 방발기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저희들은 지금 TBS eFM 같은 경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정보,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수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재난방송 이런 건 아예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뭘 들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김장겸 위원** 이거요 우리 편 방송 퍼 주기 전례가 남지 않도록 기금 편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계속 얘기한 건데 편성 보니까 아리랑국제방송 110억, 국악방송 지원 47억 또 편성했어요. 그리고 지역·중소 방송이 40개가 넘는데 여기에 50억 편성하고.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반 대행님, 왜 자꾸 이렇게 편성을 하지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요? 방발기금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렇게 퍼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방발기금이 여기에 출 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회계상 맞아요, 방발기금에서 주는 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이훈기 위원** 아니, 협의가.....

이게 6년 동안 1600억을 쌓았어요, 방발기금에서. 그렇게 쌓으면 됐지 논리가 출인다는 거잖아요. 출입 만큼 출여서 이제는 문화부의 일반회계로 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 방발

기금 써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렇게 페 주고 있어요. 아니, 아리랑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유착돼 있어요, 이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아닙니다.

○**이훈기 위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착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해요, 계속. 수도 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재부에서 안 해 준대요? 어디가 문제예요? 기재부가 문제예요, 문체부가 문제예요, 방미통위가……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이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기재부하고 문체부 두 군데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기재부에서 이렇게 못 해 주겠대요?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못 돌리겠대요, 기재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기재부는 전체적인 재정 상황……

○**이훈기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안 되면 기재부……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해결할 것 아니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기재부는 전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주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이훈기 위원** 아니, 방미통위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두리뭉실…… 가서 얘기나 제대로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저희들은 국회 지적사항 그대로 기금이 아닌 문화부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 필요하다, 국회 지적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기재부는 왜 안 된다 그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기재부는 전체적인 기금과 일반회계를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기재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이건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아니, 방발기금 계속 줄어들고 돈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계속 페 주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100% 공감……

○**이훈기 위원** 아니, 말만 하시지 말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최대한 계속 저희들……

○**이훈기 위원** 아니, 매번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해결을 해야지 매번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또 똑같은 말만 하시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몇 년째. 해결을 좀 하세요, 꼭.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2007년부터, 제가 알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 똑같은 문제가 2025년까지 지적돼 온 것이잖아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지

요.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의 규제 권한을 방미통위에 가져오든지 아니면 예산을 일 반회계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훈기 위원님, 이 사안은 방미통위 혼자 해결하기가 힘든 사항 같아서요 방미통위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회가 함께 길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최형두 간사님? 이건 김현 간사님도 문제를 늘 지적해 오셨거든요. 그렇게 힘을 좀 실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훈기 위원** 문제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일단 과방위 차원에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방미통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나왔지만 AI에 대한 관심, AI가 사실은 우리 상임위가 주로 하는 것이고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특히 그동안 제조 AI 같은 것은 앞에 제조가 붙는 바람에 산업부·중기부가 하겠다고 해서 지난해 까지 굉장히 예산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피지컬 AI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된 만큼 이 예산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더 살펴보고 더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건 아닌 말로 부처가 못 한 것을 국회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각 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형두 위원** 많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재부랑 싸우면서…… 어쨌든 국회 과방위의 초당파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달에 젠슨 황이 ‘이제는 피지컬 AI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얀 르쿤이 월드모델을 이야기하고 그런 시기에 우리의 수준은 LLM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 피지컬 AI까지 가지고 간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 부분은 좀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GPU 문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도덕적 마모라 그럼니까? GPU는 굉장히 최신형이 나오면 과거 것은 자꾸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렵사리 구했는데 실제로 지금 못 쓰는 게 많아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GPU를 많이 구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GPU를 적합하게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냥 요즘 GPU 이야기하고 AI만 하면 예산이 딱 박히는 이런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기부가 잘 선별해 줘야겠습니다.

지금 26만 장이 온다고 그랬는데 26만 중에 5만 장만 과기부, 우리 정부가 구매하는 것인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정부가 구매하거나 SPC 형태로 하는 부분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SPC 형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이 하는 겁니다.

젠슨 황이 사실은 우리 기업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넣는 건데, 그런데 아마존이 SK랑 하는 것도 다 국내의 피지컬 AI를 개발하기 위한 엄청난 데이터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여기에는 또 하나, 제가 원안위에 강조합니다만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전기요금이 우리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비쌉니다. 오겠습니까, 지금 GPU 갖다 놔도? 원안위가 해야 될 것이 뭔 일인지 잘 알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금 여러 예산 항목 중에서 보면 예컨대 AI·SW 중심대학, 각 대학에서 지역마다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이것 하면 정말 AI 인재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봐야 되고. 이게 지역 거점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학의 역량.

또 모든 것을 국비로 다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학 동문회, 그 지역 대학의 커뮤니티, 기업들이 얼마나 그 대학의 AI 중심 교육의 역량을 신뢰하고 또 스스로 기금을 내느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냥 거점별로 나눠 먹기가 되고 실제로는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디지털배움터, 특히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도 커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우체국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우체국을 새로 지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족한 무슨 주차장 공간을 더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체국 재구축하는 것 여기에 디지털배움터를 넣어서, 우체국이라는 데가 대개는 구도심에 어른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에 있습니다. 디지털 발전의 소외계층들, AI의 소외계층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디지털 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배움터 사업과 우체국 재구축 사업을 결합해서 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우체국이 포스트 오피스인데 정말 디지털 포용의 아웃포스트(outpost)가 되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도 우체국 몇 군데를 고친 데 가 보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그냥 오래된 건물을 새 건물로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있었지만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여기에 보면 자꾸 예산이 늘었는데 40% 같은 경우가 건축비 같은 겁니다, 건축비. 그런데 지금 지역 도시에 가 보면—서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빈 건물들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건물의 빈 건물 같은 걸 활용하면 최소한 이런 낭비는 없습니다. 조금만 리노베이션 해서, 실제로 교육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행도 안 되고 예산 낭비만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리를 새로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실까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만 통과시킨 게 아니고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정말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과시킨 이 법 외에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인공지능과 양자 시대를 열기 위한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까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과기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난번에 과기부차관께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꼭 필요한 법안들, 과기부도 통과에 동의하는 법안들 목록 작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특히 간사 방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 심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인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주희 위원, 이훈기 위원, 황정아 위원, 김현 위원, 조인철 위원, 이준석 위원, 김장겸 위원, 최형두 위원, 박충권 위원, 최민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면질의를 내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행정실로 제출해 주셔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두질의를 대체하는 서면질의 취지상 회의 산회 전까지 내 주셔야 하지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출하신 서면질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오후 3시까지 꼭 행정실에 접수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면질의는 답변과 함께 회의록에 게재되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제출하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기부와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수고하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카이스트 종사자들이 몇 가지 예산안 관련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면질의에 넣어 놓았고요. 이것은 아마도 예산을 짜는 게 너무 축박해서 모두의 의견을 섬세하게 수렴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정도는, 각 단위의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하고도 예산 관련한 꼭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과 혁신본부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청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우영 김장겸 김현 노종면 박충권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형두 황정아

○출장 위원(2인)

이정현 한민수

○첨가 위원(3인)

박정훈 이상휘 최수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서경춘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소프트웨어정책관직무대리 이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최동원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곽병진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정창립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이충원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한형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 장현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우주항공산업국장 한창현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인공위성부문장 김진희

항공혁신부문장 김현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4)

9월 19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8)

9월 22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7)

9월 26일 회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2)

이동통신보안법안

(2025. 9. 26.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9. 2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6)

이상 5건 9월 29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1)

9월 30일 회부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이상 2건 10월 10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6)

10월 13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4)

이상 2건 10월 16일 회부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0.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0.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6)

이상 2건 10월 21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4)

10월 24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8)

10월 27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0)

10월 29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9)

이상 2건 11월 3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1. 3.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3)

이상 4건 11월 4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5)

11월 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2025. 9. 2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1)

9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7)

10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1)

10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10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2025. 10. 2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10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5735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제35749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5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5800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581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58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205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시회의록